



이숙자 남원시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 생활정치 부아 '우수상' 수상 영예

남원시의원 이숙자 의원이 최근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 시상식'에서 생활정치 부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여성 지방의원의 정책 성과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의정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공로가 높이 평가된 결과로, 이숙자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 강화 △교과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민 참여 기반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 △현장 중심의 민생 소통 의정활동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생활정치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제도로 완성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직장어린이집, 제7회 졸업식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직장어린이집이 제7회 졸업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했다.

병원 내 모악홀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은 14명의 졸업 아동과 학부모, 어린이집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졸업장 수여를 비롯해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졸업을 맞은 아이들은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졸업장을 받으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며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행사장은 아이들의 웃음과 박수로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전북대병원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직원 복지시설이다.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과 진료 역량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오상근 기자



김제 환경미화원 봉사단, 김제시에 장학금 기탁

김제시는 지난 20일 김제시환경미화원봉사단(단장 이정훈)이 김제시 장학재단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정훈 봉사단장은 "현장에서 시의 청결을 위해 힘쓰는 환경미화원들의 정성이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탁이 환경미화원과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 장학재단 이사장은 "채벽부터 도심 환경 정비를 위해 헌신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장학금까지 기탁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일하는 환경, 교정의 출발점”

조항덕 군산교도소장, '미지정 수용자' 해소 작극 나서

군산교도소가 수용자들의 미지정 사동을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수용자를 작업에 참여시키는 교정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취임 직후부터 미지정 수용자를 줄이는 문제를 핵심 주요 과제로 삼아온 조항덕 군산교도소장의 현장 중심 교정 철학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조 소장은 "수용자가 장기간 좁은 거실에만 머물게 되면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기 쉽고, 수용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반면 작업장이나 공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운동을 병행하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사회성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산교도소의 취업 대상 수용자는 미결 수용자를 제외하고 수행자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30여 명가량은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다. 비교적 많은 수용자가 미지정 사동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조 소장은 "신체적 질병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습 규율 위반자, 금지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용자, 단기형 출소 예정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작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작업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군산교도소는 지난 4월 이를 위해 최근 보안과, 직업 훈련과, 분류처우과 등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작업 지정과 수용동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팀원 모두가 참여한 회의를 소장실에서 진행했다.

특히 기존 미지정 수용동 일부를 출력 수용동으로 전환해 파일 수용과 미지정 사동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조 소장은 "작업 공간과 일감 부족, 작업 상여금 지급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과, 한 명이라도 더 작업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미지정 수용자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정의 기본은 수용자가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며 "작업 참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정행정 전문가들은 군산교도소의 이번 시도가 미지정 사동 문제 해결은 물론, 수용 질서 안정과 교정 본연의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0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정기총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2026년 자율방재단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는 안중환 전북자치도 자연재난과장장과 이종배 전북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장, 시·군 자율방재단장 및 부단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비전선포식과 함께 2025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비전선포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재난 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우리가 만든다"라는 구호를 합창해 외치며,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마을1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0만호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산림사업 무재해 결의대회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지난 20일 부안군립조합 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산림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산림사업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본격적인 산림사업 시행 시기를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사례 분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요령 등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오세준 조합장은 "산림 사업은 지형이 험하고 위험 요소가 많아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작업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무재해 조합'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도, 엔라인 '난닝구닷컴' 의류 2600여벌 기탁식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주)엔라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난닝구닷컴'의 의류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와 이정민 (주)엔라인 대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병규 회장 등이 참석해 기탁 물품을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의류 2,611벌(약 1억 원 상당)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배분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취약계층 의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 물품이 꼭 필요



한 이웃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주)엔라인 대표는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0만호 기자

## 우석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4년 연속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의 안정성과 국제화 역량을 다시 한번 공식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최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위 과정 인증대학 181개교를 확정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4년이며,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법인 체류유, 공인 언어능력 충족 비용,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체계 등 주요 지표를 엄격히 심사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한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유학생 선발 단계의 검증 강화, 체계적인 학사 관리,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등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인증(비자) 발급 시 심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금(KS) 수탁 대학 선정과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시에도 우대를 받는다. /오상근 기자



박노준 총장은 "4년 연속 인증은 우리 대학의 체계적인 국제화 전략과 유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학생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중국 교육부의 중의 합작 프로그램을 비롯해 세계 32개국 255개 대학, 58개 기관과 교류 협력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오상근 기자

## 인테크디자인 회장,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지난 19일, (주)인테크디자인(경기도 의왕시) 최광일 회장이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인테크디자인은 최근 남원에서 실시한 남원현 대우철목공예전시관과 피오라움 관련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최광일 회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남원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온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그 취지에 맞게 남원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익산 삼성동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익산시 삼성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선남)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주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과 함께, 스스로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꾼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위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삼성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먼저 여수 고소천사별화마을을 방문했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마을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되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위원들은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며 주민의 정성이 지역 공동체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험했다. 김선남 회장은 "주민의 손으로 직접 삼성동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더욱 활기찬 삼성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한전 정음, 윤준병 의원과 설 맞아 이웃사랑 나눔

한국전력 정음시사는 지난 13일 설 명절을 맞아 윤준병 국회의원과 함께 정음시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나눔 온(On!)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사회공헌활동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음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산물과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한전 김제, 설 맞아 김제노인복지관에 후원금

한국전력 김제지사(지사장 신진형 노조위원장 김기열)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12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금은 한전 김제지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조성돼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